

IFRS in Focus

IASB는 IAS 1의 당기손익 및 기타포괄손익 표시방법에 대한 변경을 제안

핵심내용

- 모든 기업은 당기손익 및 기타포괄손익을 단일의 보고서에 2개의 영역으로 구분하여 연속하여 표시해야 할 것이다.
- 투자자 및 다른 이해당사자의 관점에서 제안사항은 (당기손익 및 기타포괄손익) 표시방법에 있어 중요한 변경에 해당될 수도 있을 것이다.
- 당기손익 및 기타포괄손익 항목의 측정과 인식은 제안사항의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다.
- 공개초안(ED)의 의견제출 기한은 2010년 9월 30일까지이며, 확정 기준서는 2010년 하반기에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내용

- 제안사항
- 제안된 지침의 주요 특징
- 제안사항의 효익
- 다음 단계
- 예시 사례
- 주요 연락처

제안사항

2010년 5월 27일, IASB는 공개초안 '기타포괄손익항목의 표시 - IAS 1 개정에 대한 제안(Presentation of Items of Other Comprehensive Income - Proposed amendments to IAS 1)' (이하 'ED'라고 함)을 발표하였다. 본 ED는 FASB와 공동 프로젝트의 결과물이다. ED는 기타포괄손익에 포함된 항목들의 표시와 동항목들의 기타포괄손익 내 분류와 관련하여 IAS 1을 제한적으로 개정할 것을 제안한다. ED는 다음 사항을 제안한다.

- 당기손익 및 기타포괄손익을 단일의 보고서에 별도의 구성항목으로 표시함
- 후속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항목들을 기타포괄손익 내에 별도로 표시함

ED는 기타포괄손익에 보고되는 항목들을 변경하지 않지만, 동항목들을 단일의 보고서 내에 연속하여 표시되는 기타포괄손익 영역에 어떻게 표시할 지에 중점을 두고 있다.

제안된 지침의 주요 특징

현행 IAS 1에 의하면, 기업은 (당기손익과 기타포괄손익의 재무제표 표시와 관련하여) "단일의 포괄손익보고서" 또는 "당기손익보고서와 별도의 기타포괄손익보고서"로 구성된 2개의 별도 보고서로 표시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다. 제안사항에 의하면, 2개의 별도 보고서로 표시하는 후자의 선택권은 폐지될 것이다. 이에 따라, 모든

IFRS in Focus is our new IFRS newsletter. It replaces the IAS Plus Newsletter. IFRS in Focus provides key information and insights on recent accounting developments. We hope you find it informative and user-friendly. We welcome your comments and suggestions. Please send them to DTTGLOBALIASCO@deloitte.com. And don't forget, with over 11 million visitors, IAS Plus is the most comprehensive source news about IFRS on the Internet. Please check in regularly at iasplus.com

For more useful information please see the following website:

www.iasplus.com
www.deloitte.co.uk

기업은 당기손익과 기타포괄손익 모두 단일의 보고서 내에 연속하여 표시해야 할 것이다.

당기손익의 개념은 유지되는 반면, 제안사항은 비소유주와의 거래로 인한 자본변동(non-owner changes in equity)의 구성요소인 모든 수익과 비용은 단일의 보고서에 표시되어야 한다는 IASB의 관점을 반영하고 있다. 동 보고서에서 당기손익은 중간합계로 표시되고, 총포괄손익은 총합계로 표시될 것이다.

제안사항에 의하면 "당기손익"이라는 용어는 그대로 유지될 것이다. 왜냐하면 IASB는 당기손익이 앞으로도 계속 중요한 성과측정치가 될 것으로 믿고 있기 때문이다. ED는 기타포괄손익 또는 당기손익으로 인식되는 항목을 변경하지는 않는다. 주당이익과 같은 다른 성과지표의 계산 또한 제안사항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다.

제안된 ED에 의하면, 기업은 단일의 보고서 내에 2개의 영역, 즉, 순이익 다음에 기타포괄손익을 연속하여 공시해야 할 것이다.

당기손익 및 기타포괄손익을 단일의 보고서 내에 연속적으로 표시하는 규정은 많은 기업에게 본 ED의 제안사항 중 가장 중요한 변경사항이 될 것이다. ED에서 제안된 다른 변경사항은 기타포괄손익 내 항목의 표시 및 분류와 관련이 있다. 이러한 변경사항은 다음을 규정하고 있다.

- 기타포괄손익 항목을 다음과 같이 통합 분류해야 한다.
 - 후속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항목
 - 후속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 기타포괄손익이 관련 법인세효과를 반영하기 전의 금액으로 표시되는 경우, 법인세는 상기의 기타포괄손익 분류별로 배분해야 한다.

ED는 이렇게 2개의 영역으로 표시되는 단일 보고서의 명칭을 "당기손익 및 기타포괄손익 보고서(Statement of Profit or Loss and Other Comprehensive Income)"로 제안한다. 그러나, 현행 IAS 1 규정과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제안사항은 기업이 동 보고서에 대하여 다른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계속 허용할 것이다.

논평

이번 ED에 앞서 발표한 토론회에 대하여 의견제출자들이 제기한 주요 우려사항은 단일의 보고서를 요구하는 규정과 동 규정이 순이익 또는 "당기손익" 금액의 중요성을 약화시킬 위험이 있다는 것과 관련 있다. 이러한 우려사항은 IASB가 전반적으로 성과보고와 관련하여 보다 포괄적이고 개념적인 이슈를 다루고 해결하기 이전에 당기손익보고서를 표시하는 선택권을 폐지할 무렵에 제기되었다.

제안사항의 효익

IASB는 2개의 별도 보고서(다시 말하면, 당기손익보고서와 기타포괄손익보고서를 각각 표시)를 통합하여 단일의 보고서 내에 연속적인 형태로 표시함으로써, 정보이용자에게 다음과 같은 효익이 있을 것으로 믿는다.

제안된 변경사항은 표시방법에 한정되며, 기타포괄손익으로 기록되는 항목들을 변경하는 것은 아니다.

- 비소유주와의 거래로 인한 모든 자본변동이 동일한 보고서에 표시될 것이다.
- 현행 IAS 1에 따라 적용 가능한 표시방법에 대한 선택권을 폐지함으로써 비교가능성이 향상될 것이다.

- 당기손익과 기타포괄손익 항목이 명확히 구분되며, 이에 따라 당기손익의 중요성을 유지함과 동시에 비소유주와의 거래로 인한 자본의 기타변동으로 발생하는 손익의 중요성도 강조하게 될 것이다.
- 정보이용자에게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을 항목을 강조하기 때문에 기타포괄손익에 포함된 항목들의 투명성이 크게 증대될 것이다.

다음 단계

ED에 대한 의견제출 기한은 2010년 9월 30일까지이며, 확정 기준서는 2010년 하반기에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예시 사례 - ED에 따른 표시 제안

ED에 근거하여 작성한 다음의 보고서 표시 사례는 당기손익 및 기타포괄손익의 표시에 대하여 ED의 제안사항에 따라 적용이 가능한 2가지 표시방법을 예시하기 위함이다. 실무적으로 실제 표시방법은 개별 사실과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것이다.

사례 1: 당기손익 및 기타포괄손익 보고서

당기손익	당기	전기
수익	500,000	400,000
매출원가	(250,000)	(200,000)
매출총이익	250,000	200,000
기타수익	20,000	15,000
관리원가	(50,000)	(40,000)
기타비용	(15,000)	(10,000)
영업이익	205,000	165,000
금융원가	(12,000)	(12,000)
금융수익	18,000	17,000
세전이익	211,000	170,000
법인세비용	(67,520)	(54,400)
당기순이익	143,480	115,600

당기순이익의 귀속	당기	전기
지배기업의 소유주	121,500	97,150
비지배지분	21,980	18,450
	143,480	115,600

주당이익	당기	전기
기본주당이익	0.96	0.77
희석주당이익	0.90	0.72

기타포괄손익(법인세효과 차감 후)	당기	전기
후속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확정급여제도의 보험수리적손익 (당기와 전기의 법인세효과 각각 3,200과 6,400 차감 후)	6,800	(13,600)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소계	6,800	(13,600)
후속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항목		
현금흐름위험회피		
당기발생 차익(차손) (당기와 전기의 법인세효과 각각 3,840과 5,120 차감 후)	8,160	(10,880)
당기손익에 포함된 차익(차손)의 재분류조정 (당기와 전기의 법인세효과 각각 640과 800 차감 후)	(1,360)	1,700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항목 소계	6,800	(9,180)
기타포괄손익	13,600	(22,780)
총포괄이익	157,080	92,820

총포괄이익의 귀속	당기	전기
지배기업의 소유주	135,100	74,370
비지배지분	21,980	18,450
	157,080	92,820

사례 2: 포괄손익보고서

당기손익	당기	전기
수익	500,000	400,000
매출원가	(250,000)	(200,000)
매출총이익	250,000	200,000
기타수익	20,000	15,000
관리원가	(50,000)	(40,000)
기타비용	(15,000)	(10,000)
영업이익	205,000	165,000
금융원가	(12,000)	(12,000)
금융수익	18,000	17,000
세전이익	211,000	170,000
법인세비용	(67,520)	(54,400)
당기순이익	143,480	115,600

기타포괄손익	당기	전기
후속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확정급여제도의 보험수리적손익	10,000	(20,000)
관련 법인세효과	(3,200)	6,400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계	6,800	(13,600)
후속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항목		
현금흐름위험회피		
당기발생 차익(차손)	12,000	(16,000)
당기손익에 포함된 차익(차손)의 재분류조정	(2,000)	2,500
관련 법인세효과	(3,200)	4,320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항목 계	6,800	(9,180)
기타포괄손익	13,600	(22,780)
총포괄이익	157,080	92,820

순이익의 귀속	당기	전기
지배기업의 소유주	121,500	97,150
비지배지분	21,980	18,450
	143,480	115,600

주당이익(순이익 기준)	당기	전기
기본주당이익	0.96	0.77
희석주당이익	0.90	0.72

총포괄이익의 귀속	당기	전기
지배기업의 소유주	135,100	74,370
비지배지분	21,980	18,450
	157,080	92,820

주요 연락처

IFRS global office

Global IFRS Leader – Clients and Markets

Joel Osnoss

ifrsglobalofficeuk@deloitte.co.uk

Global IFRS Leader – Technical

Veronica Poole

ifrsglobalofficeuk@deloitte.co.uk

Leader – Global IFRS Communications

Randall Sogoloff

ifrsglobalofficeuk@deloitte.co.uk

IFRS centers of excellence

Asia-Pacific

Korea

이길우

kilwlee@deloitte.com (Tel: 02 6676 3980)

Hong Kong

Stephen Taylor

iasplus@deloitte.com.hk

Melbourne

Bruce Porter

iasplus@deloitte.com.au

Tokyo

Shinya Iwasaki

iasplus-tokyo@tohmatu.co.jp

Americas

New York

Robert Uhl

iasplusamericas@deloitte.com

Montreal

Robert Lefrancois

iasplus@deloitte.ca

Buenos Aires

Fermin del Valle

iasplus-LATCO@deloitte.com

Europe-Africa

Brussels

Laurent Boxus

BEIFRSBelgium@deloitte.com

Copenhagen

Jan Peter Larsen

dk_iasplus@deloitte.dk

Frankfurt

Andreas Barckow

iasplus@deloitte.de

Johannesburg

Graeme Berry

iasplus@deloitte.co.za

London

Elizabeth Chrispin

iasplus@deloitte.co.uk

Madrid

Cleber Custodio

iasplus@deloitte.es

Moscow

Michael Raikhman

iasplus@deloitte.ru

Paris

Laurence Rivat

iasplus@deloitte.fr

Rotterdam

Ralph ter Hoeven

iasplus@deloitte.nl